지루한 수업이 끝나고 찾아온 쉬는 시간.

평소랑 달리 안 자고 깨어있으니, 반에 있는 애들이 눈에 띄었다.

두런두런 모여서 떠드는 여자애들, 쉬는 시간에도 책을 펴고 공부하는 모범생, 매점에서 산 과자를 먹는 남자애.

서로 다르지만 각자 자기 좋을 대로 쉬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

딱 한 명.

“으이씨…!!”

교실 뒤에 있는 쓰레기통에서, 잔뜩 쌓여있는 쓰레기봉투와 씨름하는 한소원을 빼고.

다른 애들은 다 쉬고 있는데, 한소원만 쌓여있는 쓰레기봉투들을 치우려고 애쓰고 있다.

굳이 자기가 나서서 치우지 않아도 되는데…. 내버려 두기 싫었던 걸까?

봉투가 꽉 차서 무거워 보이는데도, 혼자서 끙끙거리며 어떻게든 옮기고 있었다.

이제 같은 학생회인데 못 본 척하는 것도 그렇겠지. 내가 좀 거들어줘야겠다.

<< 발소리 >>

“도와줄까?”

“…뭐?”

“혼자 하긴 힘들어 보여서. 나르는 거 도와줄게.”

“…하아. 야,”

내 말에 한소원의 표정이 험악해졌다.

“너 진짜 성격 안 좋다.”

“도와주는 게 아니라 당연히 네가 해야지! 이번 주 주번 너잖아!”

“어?”

내가 주번이라고?

“…우리 반에 주번이 있었어?”

“왜? 몰랐다고 하게? 반 애들 전부 한 번씩은 했는데 그걸 왜 몰라?”

“아니, 진짜로 몰랐어….”

“흥. 모르긴 뭘 몰라. 하기 싫어서 모른 척한 거지.”

“진짜 몰랐어! 나 주번 얘기 들은 적 없었단 말이야!”

“됐고, 거기 있는 봉투나 들고 따라와.”

한소원은 화난 표정으로 교실을 나가버렸다.

곧바로 쓰레기봉투를 들고 한소원의 뒤를 쫓아갔지만, 더 말을 붙일 수가 없었다.

“….”

말 거는 순간 바로 화낼 것 같다.

그리고 지금 내가 뭐라고 해도 변명 같겠지….

…조용히 따라가자.

<< 이동 >>

한소원을 따라 걷다 보니, 학교 쓰레기 처리장에 도착했다. 쓰레기장엔 세절한 종이 묶음이 잔뜩 쌓여있어 날리는 먼지가 상당했다.

“읏차….”

쓰레기봉투가 모인 곳에 가져온 걸 올리고, 괜찮은 건지 한소원을 쳐다봤다.

“야.”

안 괜찮은 것 같다.

“너. 다른 건 몰라도 맡은 일은 똑바로 해.”

“…무슨 말이야?”

“아까처럼 모르는 척해서 귀찮은 일 피하지 말라고. 나서서 남들 도와주는 건 기대도 안 하니까.”

“적어도 맡은 일이라도 제대로 해. 만약 학생회에서도 지금처럼 그러면….”

“나 진짜 가만히 안 있을 거야.”

한소원의 눈을 보고, 오해라고 설명하기엔 이미 늦은 걸 깨달았다.

내가 아무리 설명해봤자 소용이 없겠지. 믿어주지 않을 테니까.

나는 체념한 채로, 한소원의 시선을 피했다.

“…알겠어.”

“알면 됐어. 그러면 이제….”

“에….”

“에?”

“에에….”

“…히에취!”

날려대던 먼지 탓인지, 한소원이 이상한 소리와 함께 재채기했다.

“이씨…. 뭐, 되게 날리네…. 빨리 나가자….”

“어?”

“어!? 어디 갔지?”

갑자기 한소원이 자리에 웅크리고는, 바닥에서 뭔가를 찾기 시작했다.

“왜 그래? 뭐 떨어졌어?”

“아…. 그게.”

“나, 렌즈 떨어졌나 봐.”

“렌즈? 렌즈 쓰고 있었어?”

“왜. 눈 나빠서 끼고 다닌다. 끼면 안 돼?”

“아니, 끼는 줄 몰라서…. 아, 찾았다. 여기 있네.”

바닥에서 먼지투성이가 된 렌즈 두 개를 주워, 한소원에게 건넸다.

“근데 이거 더러워져서 쓰면 안 될 것 같아.”

“하아…. 가방 안에 예비 렌즈 있으니까, 그거 써야겠네.”

“응. 그럼 돌아가자.”

“…야.”

쓰레기 처리장에서 나가려는데 한소원은 가만히 자리에 서 있었다.

“왜 그래? 뭐 또 떨어진 거 있어?”

“그게 아니라, 저기….”

“나, 눈이 나빠서…. 잡을 거 필요해.”

…잡을 거?

“지팡이 말하는 거야?”

“장난해!? 그 정도는 아니거든!?”

“그러면 뭐를….”

“…팔.”

“뭐?”

“파, 팔 좀 줘봐! 뭐라도 잡고 가게!”

한소원이 말하는 대로 하자, 한소원이 엉거주춤한 자세로 팔을 붙잡았다.

“가, 가자. 이러면 괜찮으니까.”

“…괜찮은 것 맞아?”

“아예 안 보이는 건 아니니까 괜찮아.”

“이거 손가락 몇 개야?”

“그 정도는 보여. 3개잖아.”

…4개인데. 최대한 조심해서 가야겠다.

마음을 단단히 먹고, 한소원과 쓰레기 처리장에서 나왔다.

<<이동>>

“너무 빨리 걷는 건가? 속도 줄일까?”

“으, 응. 좀만 천천히 걸어도 돼.”

“알았어. 조금 더 가서부터 계단이니까 조심해.”

<<이동>>

“계단 몇 개인지 말해줄까?”

“그렇게까지 말해줄 필요는 없거든.”

“혹시 몰라서. 그래도 꽉 잡아. 넘어지면 다치잖아.”

“…응.”

<<이동>>

“후우…. 다 왔다.”

수업 시간에 늦진 않을까 했지만, 의외로 별문제 없이 쉬는 시간 안에 교실 앞에 도착했다.

“자리까지 데려다줄까?”

“돼, 됐어. 거기까진 내가 알아서 가.”

“응. 그럼 가볼게.”

문을 열고 반으로 들어가려던 차, 한소원이 잡고 있던 팔을 다시 당겼다.

“야.”

“…아까 한 말. 취소할게.”

“아, 자리까지 데려다줘?”

“그, 그 얘기가 아니라! 교실 뒤에서 말한 거랑, 쓰레기 처리장에서 말한 거.”

“…혼자서 치우다가 열 받아서. 막말했어. 미안.”

“아냐, 뭐. 나도 잘못했는데.”

“…됐어. 나도 취소했으니까, 너도 사과하지 마. 알겠지?”

한소원은 표정이 보이긴 하는 건지, 내 얼굴을 바라봤다.

“응. 알겠어.”

“…흥. 알면 됐어.”

열린 교실 문 안으로 들어가며, 한소원은 조용히 한마디 덧붙였다.

“…그러면 나중에 봐.”